

일본과 미국 대학의 창업교육과정과 시사점

지 용 희 *
방 용 태 **

.....

미국대학의 창업교육이 본격화된 것은 1980년대 이후이지만, 창업전공 교수진의 확보, 다양한 교과목의 개설, 창업촉진효과 등의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미국 특유의 실용주의의 영향으로 단순히 강의실에서의 이론교육, 문헌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업경연대회에의 참가, 사업프로젝트의 실행 등 행동지향적, 성과창출형의 교육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일본대학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창업, 벤처경영을 중시하는 사회적 동향에 소극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소수의 대학에서 재학생보다는 사회인 대상의 창업교육을 학위과정 또는 비학위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아직 창업과 관련된 교과과정의 개설조차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학부와 대학원에 다양한 창업관련 교과과정의 신설, 학과와 창업지원센터의 병행운영,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계획의 발굴을 위한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 성공한 창업기업가 및 창업관련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등이 요망된다.

.....

1. 창업지원과 대학교육

90년대에 들어와서 미국경제의 부활과 일본경제의 쇠락이라는 대조적인 현상을 동시에 접하게 되면서, 양국간 경제상황의 역전에 대한 설명변수의 하나로 벤처기업 성장력의 차이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육성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창업의 행위주체는 어디까지나 개인, 즉 예비기업가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이 의욕적으로 창업이라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전체의 분위기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창업과 대학교육간의 관계를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대학교육이 예비기업가들의 창업을 어느 정도 촉진시켰는가 하는 성과문제이다. Clark et al.(1984, p.29)이 미국의 한 대

*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

** 서강대학교 창업·중소기업연구원 상임 연구위원

학에서 1978-82년의 여름학기 단기코스로서 개설된 과목(과목명 : Your Future in Business)을 수강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이점에서 대학교육의 유효성을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다. 해당과목을 수강할 당시 아직 창업 또는 중소기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았던 892명의 학생들에게 설문한 결과, 수강후 창업계획의 수립작업에 들어갔거나 또는 창업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된 학생이 조사대상 전체학생의 36.9%를 차지했고, 창업에 대해 고려해보고 있는 학생이 42.2%로 나타났다. 실제로 가까운 장래 또는 6개월이내에 창업하기로 계획을 수립한 156명의 수강생 가운데 129명이 창업을 실행하였다. 이는 대학의 창업강좌를 들은 학생의 14.5%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따라서 창업관련 과목의 개설이 학생들을 동기부여하여 아이디어 구상단계에서 사업실천단계로 나아가게끔 촉발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는 학생들의 반응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조사대상학생의 76%가 교과목의 수강이 이후의 창업에 '매우 크거나' 또는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다.

일본 및 미국 대학들은 예비창업자인 대학생들이 창업에 관한 사전준비와 계획을 짜임새 있게 세워서 창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업관련 교과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양국 대학의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한 뒤, 우리나라 대학의 창업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해 보기로 한다.

2. 일본대학의 창업교육과정

1) 대학의 창업교육에 대한 경제·사회적 환경의 형성

기업의 수익성, 성장성, 국제성, 사회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순위를 매긴 일본의 '우수회사랭킹'(일본경제신문사, 1995년 2월 27일자)의 상위 10개 회사 가운데 후지필름, 마츠시타電工, 키린맥주를 제외한 7개 회사의 면면을 보면 2차대전후의 독립기업가(independent entrepreneur)가 설립한 신흥벤처기업(이토요카도:4위, 룬:공동6위, 자스코:9위) 또는 사내기업가(corporate entrepreneur)가 세운 자회사(세븐일레븐재팬:1위, 파낙:2위, 세가엔터프라이즈:3위,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공동6위)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국가경제, 기업경영의 활력은 창업가에 의해 조성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본기업은 지금까지 시장점유율 증시, 이익경시, 독창성체제의 경영스타일을 추구해옴으로써 동질적, 집단적 조화를 유지해왔을 뿐, 기업별 특화의 부재, 사업퇴출의 곤란이라는 문제를 갖게 되었다(松田·大江, 1996, p.16).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립벤처기업가와 사내기업가를 배출하기 위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독창성 증시의 교육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일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三井, 1997)의 결과를 보면, 졸업후의 진로선택의 순

위가 대기업 취직(37.5%), 창업(21.5%), 중소기업 취직(20.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진로선택의 순위는 응답학생의 부모의 직업과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학생들이 창업을 고려할 때 갖는 불만으로는 정보부족(34.6%), 직업에 대한 편견(30.8%), 음자제도의 미비(30.8%), 대학 커리큘럼의 문제(27.8%) 등을 꼽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대학생들이 창업을 염두에 두고 실행에 옮기려 해도 이를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촉매제가 결핍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대학생들은 기술지식의 연마(39.5%), 창업공부(33%), 자금준비(12%) 등의 형태로 창업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창업공부는 대학에서 관련과목의 수업을 듣는 것을 말하는데, 수업내용은 재무·회계, 창업, 경영전략의 입안, 마케팅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대학의 창업관련 커리큘럼의 실태에 관한 체계적, 종합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일은 없으며, 동양경제신보사(ベンチャークラブ, 1997년 2월호)등에서 기사로 몇몇 대학의 동향을 소개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사로 소개된 대학중 일부에 대해 필자들이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으로 입수한 개별대학의 창업관련 교과과정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주요 대학의 창업교육과정

(1) 法政大學 (Hosei Univ.)

法政大學은 1992년 4월에 경영대학원을 개원하였으며, 일본 최초로 야간대학원에 박사과정을 신설하였다. 현재 法政大學은 창업자, 창업지원자, 최고경영자, 중간관리자 등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여 고도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목적으로, 비즈니스의 주요 직능분야에 대응한 5개 전공코스를 개설하고 있다. 이들 코스명은 기업가 양성코스, 인재개발 코스, 마케팅 코스, 경리인 코스, 국제경영 코스등인데, 98년의 경우 모집정원은 55명이다.

기업가 양성 코스에는 기업가양성분야와 벤처캐피탈리스트 양성분야의 두 분야가 있다. 전자는 독립기업에 뜻을 둔 자, 기존기업내에서 신규사업을 일으키려는 자, 경영후계자 등에게 경영능력을 체득시키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후자는 신생기업에 대한 리스크캐피탈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일본의 현황에 비추어 벤처캐피탈리스트의 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어 98년도에 신설된 프로그램이다. 기업가양성 코스의 개설과목은 다음과 같다.

가) 필수과목

- ① 워크숍 : 기업경영자에서 벤처기업창업자, 기업체의 부장·과장, 현장감독자에 이르는 실무가들이 강의를 하고, 교수진들이 사회를 맡아 토론을 전개하는 형태로 실업계와 학계의 교류를 꾀한다.
- ② 기업가, 벤처캐피탈리스트 양성연습

나) 선택필수

아래의 과목군 중 하나를 선택하여 2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 1군>

- ① 창업 : 기업가의 성격, 창업의 국제비교, 창업과정, 경영철학, 사업계획, 연구개발, 마케팅, 조직, 자금조달, 기업성장, 사내창업 등에 대한 이론 및 사례연구를 병행한다.
- ② 起業家史 : 근대 일본 경영사에 획을 그은 기업가들의 산업개척자적 활동을 고찰하여, 공통점을 발견해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강의내용은 산업개척자 연구의 의의, 근대 일본 경영사의 전개와 산업개척자 활동, 이룩기의 산업개척자, 기술자의 산업개척 활동, 소비재산업의 산업개척자, 산업개척자의 자금원천, 산업개척자활동의 사례연구, 산업개척자의 요건 등이다.

③ 경영전략론

<제 2군>

- ① 벤처캐피탈리스트론 : 벤처캐피탈의 개념, 자질과 교육·훈련, 역사적 전개, 네트워크 비즈니스로서의 현대적 벤처캐피탈, 미국의 벤처캐피탈리스트와 엔젤, 벤처캐피탈의 유형과 기능, 일본적 특징, 활동사례 등을 다룬다.
- ② 벤처파이낸스론 : 벤처캐피탈리스트 또는 벤처기업가를 목표로 하는 자들이 재무관리의 개념과 기법을 이해하여 구체적 문제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강의의 목표이다. 수업내용은 현금흐름분석 등의 재무분석, 투자조합등의 파이낸스 방법, 자본구성의 선택, 투자자의 영향력 행사, 투자자본회수(주식공개, 청산등), 이익분배 등의 문제에 대해 연구한다.
- ③ 벤처비즈니스 감사론 : 벤처비즈니스 관점에서 회계, 경영분석, 법인세 문제를 다루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재무제표분석방법, 기업회계제도와 이익계산의 특징과 문제점 등을 학습한다. 구체적인 계산보다는 기본적 사고의 습득에 중점을 둔다.

<제 3군>

- ① 벤처매니지먼트 : 장외공개기업의 사례를 통해 창업에서 기업공개까지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대기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벤처기업경영의 본질을 학습한다. 또한 정보기술의 발달등 외부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이념, 조직구조, 인사제도, 생산체제, 정보시스템 등을 연구하여 참신한 발상과 이론적인 검증작업을 통해 벤처매니지먼트의 노하우를 터득한다.
- ② 신규사업개발론
- ③ 기업가, 벤처캐피탈리스트 양성 특수연구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法政大學은 일본대학 최초로 대학원 과정에 기업이 양성코스를 설치했다는 점, 일본내 벤처캐피탈리스트의 부족을 타파하기 위해 벤처캐피탈리스트 양성 분야를 실험적으로 개설한 점이 특기할 만하다.

(2) 早稻田 大學(Waseda Univ.)

早稻田 大學에서는 아시아태평양양연구센터와 대학원의 아시아태평양연구과에서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가) 아시아태평양양연구센터의 창업교육과정

아시아태평양양연구센터는 비학위과정으로 창업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정원은 60명이다. 수업형태는 과목에 따라 1년제, 학기제 등이 있으며, 야간수업 및 단기집중 수업도 가능하다. 또한 과목별로 강의개시일 및 종료일이 상이하며, 수업료도 과목당 산정되고 금액도 다르다. 기업가양성코스에는 다음의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으며, 각 과목은 복수의 교수진이 순차적으로 분담하여 강의하고 있다.

- ① 起業 플래닝 : 강의목표는 사업기회의 발견, 사업아이디어의 평가, 체계적인 사업계획의 작성을 연구한다
- ② 도전하는 기업의 경영·조직의 변혁 다이어미즘 : 강의목적은 각 기업의 경영조직의 다이어미즘과 발전과정, 사내벤처의 성공적인 추진기법 등을 학생들에게 체득시키는데 있다. 구체적인 강의내용은 변혁을 맞이한 일본형 경영, 사내벤처의 필요성과 성공요인, 21세기 기업경영의 목표, 멀티미디어 시대의 조직변혁, 제2창업의 다이어미즘에 대한 사례연구와 종합토론 등으로 짜여져 있다. 수강대상은 현재 경영, 조직, 인사의 변혁필요성에 직면한 기업의 경영간부, 차세대를 이어갈 벤처기업의 경영자 등이다.
- ③ 실리콘밸리 이노베이션 : 강의목적은 90년대 이후 미국산업 활성화의 원천이 된 실리콘밸리의 이노베이션, 특히 하이테크 기업의 성공요인을 탐구하는 것이다. 실리콘밸리의 기업과 일본기업의 전략차이 등에 대해 실리콘밸리 기업의 일본법인 사장으로부터 직접 강의도 듣게 된다. 구체적인 강의내용은 기업가정신과 실리콘밸리, 페어차일드 사례연구, 휴렛팩커드와 벤처경영, 실리콘밸리의 역사와 역할, 기업제휴전략, 인재육성전략과 스톡옵션, 전략결정의 짜임새, 실리콘밸리 기업의 일본전략, 사내벤처와 독립벤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강대상은 하이테크 기업의 경영스텝, 실리콘밸리 기업과 업무제휴를 담당하고 있는 자, 하이테크 사업의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자, 출장·해외주재 등으로 실리콘밸리에 가게 될 자 등이다.

- ④ 가설의 매니지먼트 : 강의목적은 신규사업개발 및 창업을 효과적으로 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사고방식인 '가설의 매니지먼트'의 방법론에 대해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을 활용하면서 학습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강의내용은 기업가적 사고, 사업성공확률의 평가법, 가설매니지먼트, 사업컨셉트 구상, 사업목표의 설정방법, 이익원천도표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면서, 사업계획에 의한 비즈니스 모델의 작성과 실습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행한다. 수강대상은 신규사업추진자 및 기획담당자, 벤처캐피탈 및 투융자 담당자, 창업지원 컨설턴트를 목표로 하는 자 등이다.

이 밖에도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에서는 早稻田起業研究會(Waseda Entrepreneurial Research Unit : WERU)를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연구회의 입회대상은 벤처기업의 起業家, 예비起業家, 벤처기업의 경영지원자, 기타 흥미를 갖고 있는 연구자 등이다. 연구회에서는 월례연구회 및 매년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있으며, 회원들은 대학원의 기부특별강좌(주 1회)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98년 4월 ~ 99년 2월까지의 월례연구회의 테마는 해외·일본의 초기투자의 현상과 지원방법(4월 21일), 미공개주의 매매와 벤처지원(5월 19일), 지적재산권의 확보와 활용(6월 16일), 벤처의 위기와 대응(7월 14일),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육성(9월 22일), 국제심포지움(10월 15-16일 : MIT의 연구개발활동과 기업가육성지원, 대학지원캐피탈의 설립과 현황, 사업계획발표 및 개별면담), 와세다의 벤처매출 가능성(11월 17일), 와세다의 지적소유권 존재와 활용(12월 15일), 글로벌 벤처의 지원(99년 1월 19일), 벤처기업 설립동향(99년 2월 16일) 등으로 되어 있다. 이 연구회는 대학명의로 출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벤처투자회사를 연구회 멤버가 중심이 되어 설립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나) 대학원의 아시아태평양연구과 석사과정

98년 4월에 대학원에 본 연구과가 신설되었으며, 국제관계학과 국제경영학의 2가지 전공을 두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연구과는 교직원, 대학원생, 국제기관·정부·연구기관등의 학외 관계자간의 유기적인 상호관계를 조직화한 3각 교육방식을 채택하여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그중 국제경영학 전공의 경우에는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만이 응시자격이 있으며, 개설과목 가운데 벤처기업의 창출과 경영연구, 사내벤처 연구 등 2과목이 프로젝트연구의 형태로 되어 있다. 프로젝트 연구는 강의와 더불어 field work, 인턴연수 등 학생들이 희망하는 연구활동을 가능케 하여 실무교육의 효과를 높히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프로젝트 연구이외의 일반 강의과목으로는 「起業·경영정책」이 있는데, 이중에 벤처기업론, 중소기업성장론, 사내벤처론, 벤처캐피탈론, 사업계획론, 신제품·신규사업개발전략, 회계관리시스템론 등 창업관련 과목이 있다. 또한 특별강좌의 형태로써 벤처기업의 창출특론, 증견·벤처기업의 변혁특론 등이 있다. 이들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벤처기업의 창출과 경영연구 : 이 과목에서는 기업가 창출의 공적 지원시스템 및 엔젤, 멘터(mentor)를 포함한 창출 메커니즘, 성공하는 기업가의 특성, 사업 계승에 의한 제2창업의 형태에 의한 벤처기업으로의 변신과정, 창업방법 및 외부자금 수혜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경영의 변혁 등의 내용을 다룬다. 연구수행방법으로는 문헌연구는 물론 국내외 연구자들과 제휴하여 기업가,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앙케이트 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현장의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유형화한다. 특히 창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원생은 본 연구프로젝트를 활용하여 성공한 기업가로부터 학습하면서 자신의 사업계획을 책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 ② 사내벤처 연구 : 본 프로젝트는 사내시스템에 기업가정신의 도입기법, 신규사업 선정의 타당성 판정기법의 개발 및 적용, 사내기업가의 적성진단 시스템의 개발 및 적용, 사내벤처의 구체적 사업계획 입안, 사내벤처의 관리방법의 개발 및 적용, 사내벤처와 기존사업간의 갈등 해결방법의 개발 및 적용, 기술개발 프로젝트의 전략과 선택 등을 다룬다. 연구수행방법은 상기의 「벤처기업의 창출과 경영연구」와 동일하다.
- ③ 벤처기업 창출특론(봄학기) : 본 강좌의 목표는 창업인프라의 정비를 활용하여 많은 기업가를 배출하기 위해, 기업가정신을 환기시켜 자아의 발전을 촉진시키는데 있다. 이를 위해 벤처기업가들로부터 독립기업가의 삶, 창업동기, 비전실현을 위한 도전의 즐거움 등을 듣게 된다. 구체적인 강의내용은 벤처기업·기업가의 정의, 청년층의 활약, 규제완화를 선점한 벤처경영, 벤처캐피탈의 기능, 실리콘밸리와 벤처기업, 여성기업가의 벤처도전, 벤처의 법무문제, 셀러리맨의 창업, 인생의 도전과 사람과의 만남, 벤처기업의 사업기회와 성장 등이다.
- ④ 중견, 벤처기업의 경영특론(가을학기) : 본 강좌에서는 중견, 벤처기업의 사장들로부터 기업성장 과정에서 겪는 즐거움과 어려움을 듣게 된다. 구체적인 강의내용은 수강생의 벤처적성 진단, 급성장벤처의 도산과 리스크 회피, 바이오산업의 벤처를 통해 본 일·미의 창업비교, 개발형 소매벤처, 사내벤처에 의한 기업활력, 경영위기의 극복대책과 주식공개 활용법, 이상과 현실의 매니지먼트, 발상의 전환에 의한 신규사업 창출, 수강생 벤처적성진단의 결과보고 등으로 되어 있다.

(3) 同志社 大學(Doshisha Univ.)

학부차원에서는 상학부에 창업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데, 중소기업론, 상업경영론, 소프트웨어산업론, 중소기업진단, 벤처비즈니스 워크숍이 마련되어 있다. 한편, 대학원 상학연구과 과정에는 94년부터 석사과정에 기존의 연구자과정에 덧붙여 업계에서 활약할 고도의 전문

가육성을 목표로 전문직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전문직 과정은 경영관리자, 중소기업진단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투자매니저, 국제관계스텝 등의 전문직을 목표로 하는 자, 또는 벤처비즈니스의 예비창업가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키는 과정이다. 이와 더불어 벤처비즈니스 프로그램이 96년에 신설되었으며, 개설과목은 다음과 같다.

- ① 벤처기업과 기업가정신 : 일본의 역사속에서 대표적인 혁신기업가를 예로 들어 벤처기업 성공의 제조건을 밝히는 것이 본 과목의 목표이다.
- ② 벤처기업의 매니지먼트 : 벤처비즈니스에 관한 최근의 연구상황을 추적하여, 대기업중심의 피라미드형 산업구조의 한계와 벤처비즈니스의 중요성, 뉴비즈니스의 창출 필요성 및 타당성, 창업지원시책의 현황, 창업보육문제, 벤처비즈니스의 성장과정 등을 검토한다.
- ③ 벤처기업의 파이낸스 : 벤처매니지먼트 변혁의 조건, 새로운 벤처파이낸스의 이론과 실제, 사업계획의 작성과 평가, 벤처매니지먼트 변혁과 벤처파이낸스의 사례연구, 중소기업금융, 벤처캐피탈의 전개, 뉴비즈니스의 기업 및 재무특성, 벤처비즈니스의 재무 등을 다루게 된다.
- ④ 벤처기업의 평가 : 일본과 미국의 벤처기업평가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기업평가, 스톡옵션, 기업평가를 높이는 사업계획, 일본주식공개시장의 현황, 신규공개기업의 사례 등을 다룬다.
- ⑤ 벤처기업과 산업정책 : 벤처기업을 둘러싼 사업환경의 변화, 특히 국내의 수급구조의 변화, 경영코스트 및 자금동향, 정보혁명의 영향과 적응전략, 일본경제의 다이너미즘의 원천인 중소기업의 지원에 대해 산업정책의 역사를 고찰한다.
- ⑥ 벤처캐피탈 : 본 과목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은, i) 일본과 미국의 창업환경과 벤처캐피탈의 비교, ii) 이사회 개요, 조직체제, 조사체제, 투자기준, 펀드, 사업지원, 모니터링 등 일본 벤처캐피탈의 현황과 문제점, iii) 도산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사례연구 등이다.
- ⑦ 워크숍(기업창조의 이념, 방침, 지원체제) : 벤처비즈니스 경영자, 자금조달, 인큐베이터, 행정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천적인 강의를 듣게 된다. 워크숍의 주요 주제는 벤처의 혼, 벤처플라자 구상, 기업가 입장에서 본 일본과 미국의 벤처기업 비교, 창업자세, 뉴비즈니스의 진전, 벤처비즈니스의 생존, 벤처캐피탈의 역할, 틈새경영전략, 벤처비즈니스의 기업환경, 벤처비즈니스와 도시정책, 起業과 경쟁력 등이다.

(4) 慶應大學 (Keio Univ.)

1978년 일본 최초로 학부를 갖지 않는 경영학 석사과정을 개설하였고, 91년에는 박사과정

을 추가하였다. 케이오 비즈니스 스쿨(KBS)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사례연구위주의 교육방법을 중시하는데, 이는 문제의 발견 - 분석 - 해법의 발견 - 의사결정에 이르는 능력의 개발 및 육성에 사례연구가 최적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2천여건의 사례가 비축되어 있고, 재학생은 2년간의 경영학 석사과정을 통해 1인당 500~700건의 사례를 분석하게 된다.

기업가양성코스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일본의 산업구조개혁과 활성화를 위해 기업가적 자질을 갖춘 인재의 양성이 급선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전부터 개설해온 창업전략, 중소기업 경영 등에 덧붙여 96년부터는 현역사장 10인을 초빙강사로 하는 신설과목을 포함하여 총 9과목을 선정하여 「기업가양성스쿨」을 기획하고 있다. 기업가양성스쿨의 개설과목은 창업전략, 정보시스템(원격수업), 중소기업경영, 창업론(외국인강사의 영어수업), 혁신기업의 전략분석(원격수업), 네트워크리더십(원격수업), 매니지먼트콘트롤, 벤처기업경영론, 상급관리자를 위한 정보활용교육 등이며, 앞의 4과목은 1학기(4-7월), 뒤의 5과목은 2학기(9-12월)에 개설되는 과목이다. 98년 3학기(99년 1월-3월) 과목은 필자가 방문한 5월에는 아직 미정상태이었다. 강의는 주로 오전(9시-12시 10분)에 하며, 오후(3시-6시 10분) 과목도 있다. 여기에는 재학생은 물론 각 과목별로 10명 정도의 일반사회인의 이수도 장려하고 있으며, 교통편의를 고려하여 룩폰기(六本木)의 빌딩을 임차하여 강의하고 있다. 또한 KBS기금강좌중 기업가론을 개설하여 외국인 방문교수의 강의를 열고 있다. 한편, 비즈니스 스쿨의 국제화의 일환으로서 88년부터 해외의 정평있는 경영대학원과 국제교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학원의 입학선발 인원은 97년의 경우 93명인데, 그중 25세~35세층이 전체의 87%(81명)를 점하고 있으며, 평균연령은 30.6세이다.

(5) 多摩 大學 (Tama Univ.)

多摩 大學은 1989년에 설립된 이래 92년부터 공개강좌의 형태로 창업에 관한 교육을 행해오고 있다. 92년 5월-7월의 공개강좌는 10주간에 걸쳐 신주쿠 케이오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하였는데, 수강대상은 사회인 및 학생으로서, 1강좌당 정원 100명, 수강료 3만 8천엔(사회인) 또는 1만엔(학생)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공개강좌의 축적에 의해 96년에는 '타마대학 벤처아카데미'를 발족시켰는데, 공개강좌의 내용은 벤처기업의 시대와 성공의 포인트, 벤처기업성공의 메카니즘, 하이테크벤처 성공의 메카니즘, 전략론에서 본 벤처기업경영, 재무면에서 본 벤처기업경영, 네트워크활용과 벤처기업, 주식공개전략에 의한 벤처변혁, 벤처기업의 문제점, 벤처기업 지원시스템의 활용, 시민형 벤처기업, 벤처경영자의 경험담 등이다. 97년 5월-7월의 10회에 걸친 공개강좌의 내용은 벤처기업의 시대와 벤처기업의 육성, 起業家論과 벤처기업성공이론, 비즈니스플랜 작성의 포인트, 실천벤처기업경영론, 인터넷활용 벤처기업의 사례와 동향, 벤처기업의 리스크문제, 벤처기업의 육성방안, 벤처기업지원시스템의 활용 등이다. 98년에는 '벤처기업경영론'이라는

주제아래 5월-7월에 공개강좌가 열렸는데, 과목내용은 97년과 동일하되, 97년 강좌중 「벤처기업리스크문제」가 「起業의 궤적과 신기업 業態의 도전」으로 대체되었다.

위와 같은 공개강좌와 더불어 '벤처플랫폼'이라는 회원연구회를 97년에 결성하여, 회원기업을 포함하여 가까운 장래에 起業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을 기업가회원으로 모집하여 벤처아카데미가 조직적으로 교육,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기업가회원은 초기 연회비 100만엔, 이후 연회비 3만엔을 납부해야 하며, 1년간의 연수후 사업계획서를 작성, 발표하여 11개 회원기업으로부터 출자, 용자, 업무제휴 등의 협조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학부의 커리큘럼에는 '기업활동과 사회환경' 科目群 속에 벤처기업경영론, 중소기업론등 2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3. 미국대학의 창업교육과정

1) 대학의 창업교육 역사 : 경제·사회적 배경의 출현

미국대학에서 최초로 기업가양성 관련과목을 개설한 것은 1945년 하버드 대학이 2차대전 종료후 복귀한 학생들의 니즈에 부응하여 과목을 도입한 때이다 (Vesper & Gartner, 1997). 그 후 1950-60년대에는 대기업의 변창과 중소기업의 수적 감소 및 실적의 저조로 인해 기업가양성 관련과목은 인기를 끌지 못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16개 대학의 경영학과에서 기업가양성 관련과목을 개설하는 등의 붐이 일기 시작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起業家の 이미지가 탐욕, 착취, 이기심에서 벗어나 창의성, 직업창출, 혁신성 등으로 바뀌어 가는 등 사회전반적인 평가가 개선된 점도 작용했다고 본다. 그리하여 교과목 개설 대학수는 1995년에 이르러 400개를 넘게 되었다. 창업활동의 활성화는 특히 마이크로 컴퓨터의 등장으로 규모의 경제가 대폭 축소되고, 낮은 자본집약성과 높은 수익성을 낳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등장하면서 가능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80년대 초에 뱁슨, 베일러, 남가주대학등에서 창업교육에 관한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하버드 대학은 1983년에 「창업의 개념 및 교수방법」이라는 주제의 전문가회의를 열었다. 이런 움직임에 힘입어 그뒤 많은 창업 관련 연구소, 협의회, 학술지, 교육프로그램이 생겨났다.

미국에서 벤처·창업의 붐이 조성된 배경에는 기술 종자(seeds)는 대기업이 많이 보유하고 있으나, 이의 상품화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 깔려 있다(松田·大江, 1996). 독립/사내 기업가는 시장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갖고, 기존의 조직이나 설비에 구애받지 않으며, 시장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전략적 우위를 갖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대기업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영시스템으로 인해 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에 일일이 대응해주지

못하게 되고, 이를 대신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벤처비즈니스의 등장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2) 창업관련 교과목의 내용·교수방법 및 교육의 효과

미국, 캐나다 등의 대학에서 널리 개설되고 있는 창업관련 교과목의 명칭을 보면 <표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창업론이며 그 뒤를 이어 전통적인 중소기업 경영론(small business management), 현장프로젝트/창업컨설팅(field projects /venture consulting) 등의 순으로 되어 있다. 창업론이라는 과목의 표준적 내용은 신사업설계 프로젝트, 사례연구, 강독, 강의 및 외부인사 특강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 덧붙여 학생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창업가능성·타당성 조사를 위한 현장답사형의 과목과, 창업과 기능분야의 결합형 과목(신규개업 파이낸싱, 창업마케팅 등) 등이 추가로 개설되고 있다. 또한 창업론과 전략경영론간에 전략적 비전 및 미션의 제시, 목표설정, 기회와 위기의 확인, 리스크 평가 등의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창업정책(entrepreneurship policy)이라는 과목도 등장하였다. 현재 창업관련 교과과정은 단일과목으로 개설된 이래 10년이 지나면서 학부/대학원에서 하나의 전공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기업의 성장단계와 기능분야를 두축으로 하는 교과목도 있다. 이러한 과목에서는 기업의 사업개시, 생존, 성장, 확대, 성숙 단계별로 마케팅, 재무 등의 제 기능을 어떻게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기업의 성장단계별에 따른 교과과정의 구분은, 성장기를 지나 조직을 재정비하려는 기업가와 신규개업한 기업가, 신제품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구하려는 사내기업가 등의 니즈는 서로 상이하다는 점에 기초한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미국대학에서 창업관련과목은 이제 도입단계에 있거나 시행착오의 단계에 있으므로, 이러한 교과과정의 시도는 보다 체계적인 이론과 지식이 구축되고 나서야 기업의 발전단계, 직업경력개발, 지역·문화적 수요에 맞추어 다양하게 전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미국대학의 창업교육과정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심화를 제기하는 측도 있다. Robinson & Hynes(1991, p.51)는 현재 창업커리큘럼을 두고 있지 않은 대학에 대해 커리큘럼의 도입을 확대시키는 것보다는 기존의 교육프로그램과 인적자원을 발전시켜서 질적 향상을 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견고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창업의 이론, 모델, 방법론을 개발·검증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도 창업관련 과목(나아가서는 경영학 교육 전반에 대해서)의 교육방식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었다(Behrman & Levin, 1984). 즉, 이론 및 계량적 분석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반면 정성적 요소는 무시당하고 있고, 개념·모델·분석기법에 크게 치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비구조적, 학제적, 전체적이며 복잡·모호한 현실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표 1〉 대학의 창업관련 개설과목

과 목 명	학 부	대 학 원
창업론	128개교	98개교
중소기업 경영론	109개교	31개교
현장프로젝트/창업컨설팅	44개교	31개교
창업 및 기업운영	34개교	18개교
창업계획작성	31개교	23개교
벤처파이낸스론	30개교	30개교

자료 : Vesper & Gartner(1997), p.407

* 본 조사에는 941개교의 미국대학뿐 아니라 캐나다의 42개교, 해외 270개교가 포함되어 있어서 미국대학만의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음.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Gartner & Vesper(1994)의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의 사업계획작성, 창업한 졸업생의 특강, 기업가의 실례소개 등을 통한 강의는 성과가 높은 반면, 컴퓨터 시뮬레이션 게임, 기업가와의 인터뷰 및 관련서적 리뷰 등은 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부인사의 활용은 수업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으로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외부인사가 과목의 성격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내용을 강연했거나 또는 강의능력이 부실한 경우에는 강의성과가 낮다. 반면에 외부인사가 성공한 기업가이거나 외부인사를 멘터(mentor)로 활용한 경우에는 교육의 성과가 높다. 과제물, 강독, 시험 등에서 담당교수가 과목을 부리거나 또는 그와 반대로 전혀 수업의 골격을 짜지 않은 경우에도 교육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생들을 집단으로 나누어 프로젝트를 수행케 하는 수업방식은 집단규모가 큰 경우에는 무임승차하는 학생들의 존재 또는 다수원위간의 조정의 어려움 등으로 실패로 끝나는 일이 많다.

3) 주요 대학의 창업교과과정

창업관련 교과과정을 두고 있는 미국의 대학들 가운데, US News & World Report誌의 경영대학원 창업전공 부문 평가에서 상위권에 속해 있는 대학의 교과과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¹⁾.

1) 각 대학명의 괄호안에 기재된 것은 대학의 인터넷 주소 및 US News & World Report의 1998년 평가순위임.

〈표 2〉 강의진행방식과 창업교과목의 성과

성과가 높은 강의진행방식	성과가 낮은 강의진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의 사업계획 작성 · 창업한 졸업생의 특강 · 기업가의 실례소개 및 강의후 식사모임 · 기업매도/매수의 협상 연습 · 아이디어 탐색을 위한 특허청 현지답사 · 유급 멘터(mentor)로서 경험있는 졸업생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시뮬레이션 게임 · 기업가와의 인터뷰 및 관련서적 리뷰 · 신규제조기업에 관한 기말보고서 · 관련테마와 무관한 특강 · 경영학의 핵심선수과목에 대한 지식을 요하지 않는 강의 · 학생들의 사례조사 및 보고 · 35명을 초과한 수강인원(참여적 수업의 곤란) · 사례연구, 시험, 사업계획작성의 병행(과육)

자료 : Gartner & Vesper(1994), pp.182-183

(1) Babson College (www.babson.edu / 1위)

Babson College의 학부과정은 기업가의 리더십에 초점을 두고 경영학과 교양과목간의 통합연구를 강조하고 있다. Babson College의 기업가양성교육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959년 : 제1회 Babson 동문회 학생창업상 (Student Business Initiative Award) 제정
- 1967년 : 대학원과정에 창업 관련과목 개설
- 1971년 : 학부과정에 창업 관련과목 개설
- 1978년 : Babson 학생상업회의소에 의한 창업연구센터 설립
- 1979년 : 학부에 창업 전공 설정
- 1981년 : 창업 연구회의 개최
- 1984년 : 『Babson Entrepreneurship Review』 창간, 대학사업계획경연대회 개최 (Philip Charm 기업가상)
- 1988년 : 경영대학원 사업계획경연대회 개최 (Douglass Foundataion 기업가상)
- 1989년 : 학부에 창업과 마케팅, 재무, 법학, 부동산, 경영관리, 경제학과의 합동전공과정 개설
- 1993-98년 : 경영대학원의 창업 프로그램이 6년연속 US News & World Report誌의 평가에서 1위 차지
- 1994-96년 : 경영대학원의 창업 프로그램이 3년연속 Success Magazine誌의 평가에서 1위 차지

· 1995-97년 : 학부의 창업 프로그램이 3년연속 US News & World Report誌의 평가에서 1위 차지 (학부평가는 95년에 처음 실시)

이와 같이 미국 제일을 자랑하는 Babson College의 창업 프로그램의 교과과정은 i) 창업은 단지 학습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의해 체득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ii) 강의실과 현장에서 창업의 이론과 실제에 몰입하여 실제사업을 개시하고, iii) 『Babson Entrepreneurship Review』에 기고하며, iv) 동문을 포함한 성공한 기업가의 강연을 스스로 조직하고 경청하며, v) '탁월한 기업가 아카데미 (Academy of Distinguished Entrepreneurs)'에 매년 입학하는 기업가를 벤치마킹하며, vi) 창업교육을 제1의 건학이념으로 삼고 있다는 점 등을 특색으로 하고 있다.

학부와 경영대학원에서 창업 관련과목들은 필수 및 선택과목으로 개설되고 있으며, 사례 연구와 외부연사를 초빙하여 강의도 한다.

학부의 1학년 과정에는 1993년부터 '신입생 경영체험 (Freshman Management Experience : FME)'이 필수과목에 추가로 신설되었다. FME는 2학기에 걸쳐 진행되는데, 학생들은 팀으로 나뉘어 신규사업을 만들어낸다. 각 팀은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개업의 종자자본(seed capital)으로 최고 3천달러까지 제공받으며, 사업의 흑자달성을 위한 계획, 사업개시, 경영 등을 지도받게 된다. 각 팀의 사업은 학년말에 청산되며, 종자자본을 초과한 이익의 일부는 신입생들이 주관하는 자선프로젝트에 제공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기부되는데, 지금까지 모든 팀들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대학원과 학부에서는 다음 과목들이 개설되고 있으며, 그중 신규사업창출, 성장기업경영, 창업자금조달 등 3과목은 핵심과목(core course)으로서 계속 개설되고 있으며, 다른 과목들은 학생들의 관심과 담당교수의 확보여하에 따라 수업일정은 변동되지만,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는 개설된다.

- ① Entrepreneurship and New Ventures : 본 과목은 기업가에 대한 이해, 신규사업의 기회탐색 및 평가, 기회를 사업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자원조달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학생들은 기업가와 인터뷰를 해야 하며, 팀을 형성하여 신규사업의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 ② Managing Growing Businesses : 본 과목에서는 경영의사결정의 경제적 성과 측정 및 정보 획득, 혁신기업의 경영통제시스템, 창업주경영 기업의 장단기계획, 기업가정신과 성장기업의 전문경영 등의 주제가 다루어진다.
- ③ Financing Entrepreneurial Ventures : 개인, 벤처캐피탈, 투자은행, 정부, 상업은행 등으로부터 종자자금, 성장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다룬다.
- ④ Franchising, Licensing, and Distributorship : 본 과목은 프랜차이즈와 프랜차이

지의 입장에서 프랜차이즈의 이론과 실무를 교육하게 된다. 초점은 사업의 공식 프랜차이즈에 놓여지지만, 제품프랜차이즈, 판매대리점, 라이선싱 등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된다.

- ⑤ Entrepreneurs in Organizations : 본 과목은 경영자가 직면하는 혁신유형을 개관하고, 혁신이 사내외의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제시하며, 혁신관리에 활용가능한 대안의 영역 및 각 대안을 연구한다.
- ⑥ Family Business Management : 시스템이론, 문화, 진화단계의 측면에서 가족기업을 공부하며, 가계구조, 갈등, 관계관리, 사업계승 등의 조직문제, 개인의 경력관리 등도 다룬다.
- ⑦ Marketing for Entrepreneurs : 본 과목은 기업가 마케팅의 전략과 기법, 즉 기업 초기단계의 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기업이 차별적 니즈를 확보하여 제한된 예산으로 어떻게 마케팅을 행하는지를 검토한다. 아울러 재래적 마케팅 기법과 게릴라 마케팅기법을 비교하며, 사례연구와 더불어 팀 프로젝트가 과제로 주어진다.
- ⑧ Venture and Growth Capital : Theory and Practice : 본 과목에서 다루어지는 중심과제는 벤처캐피탈의 투자, 주식거래구조, 높은 리스크가 수반되는 장기 자본투자의 가치평가 등이다.
- ⑨ Entrepreneurial Field Studies : 학생들은 기업가 프로젝트에 대해 담당교수의 지도하에 독자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교수진들은 현장연구에 대한 지도를 담당한다.

(2) University of Pennsylvania (www.wharton.upenn.edu / 2위)

Wharton School의 MBA과정에 28개의 전공이 개설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1개 이상의 전공을 선택하거나 또는 개인의 취향에 맞추어 복수전공 또는 합동전공(joint major)을 택할 수도 있다. 창업경영(Entrepreneurial Management)도 그러한 전공중의 하나인데, 관련개설 과목은 다음과 같다.

- ① Advanced Study Project
- ② Economic Management of Small Business Systems
- ③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Initiation
- ④ Field Experience in Management Consulting
- ⑤ Independent Study
- ⑥ Innovation, Change and Entrepreneurship
- ⑦ Legal Aspects of Entrepreneurship

박사과정에는 창업과 관련된 과목으로 '기술, 혁신 및 창업 세미나 (Pro-seminar in Technology,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가 가을학기에 개설되고 있다. 이 세미나에서는 기술, 혁신 및 창업에 관한 경제학, 사회학, 마케팅, 전략 분야의 논문들을 읽은 뒤 토론을 한다. 또한 논문들 가운데 4편을 골라 비평의 글을 작성하며, 이를 성적평가에 반영한다.

(3) Harvard University (www.hbs.edu / 3위)

Harvard Business School(HBS)에서 창업과 관련된 과목의 개설은 2차대전 직후인 1946년부터 시작되었다. 최근 교육의 초점은 기업가란 어떤 인물이며, 창업이란 어떤 내용인가라는 문제로부터 어떤 방향으로 창업을 전개할 것인가, 즉 창업활동의 행동모델로 이동하고 있다. HBS에서 개설하고 있는 창업경영(Entrepreneurial Management)의 과목은 다음과 같으며, 총 1,100명의 학생들이 이들 과목을 수강하고 있다.

- ① Entrepreneurial Finance
- ② Entrepreneurial Management
- ③ Entrepreneurial Management : field study
- ④ Entrepreneurial Marketing
- ⑤ Entrepreneurship, Creativity, and Organization
- ⑥ Entrepreneurship in the Social Sector
- ⑦ Management of Family Business
- ⑧ Real Property Asset Management
- ⑨ Venture Capital and Private Equity

HBS의 창업 전공의 특징은 재학생의 40% 이상이 참가하고 있는 현장연구에 있다. 현장연구를 통해 학생들은 i) 강의실에서 배운 기법들을 통합하여 실제 현장에서의 문제해결에 적용하고, ii) 팀 능력 및 프로젝트 관리능력을 강화하고, iii) 서면/구두의 발표능력을 향상시키고, iv) 정보수집, 인터뷰, 판단능력을 제고하고, v) 담당교수와의 밀접한 작업을 통해 개별적인 학습경험을 축적하고, vi) 자신의 관심있는 산업, 기업, 기능에 대한 생생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게 된다. 현장연구는 3명 이상이 팀을 이루어 프로젝트를 겨울학기 동안 또는 학년말까지 수행하게 된다.

(4) Stanford University (www.gsb.stanford.edu / 4위)

Stanford 경영대학에는 리더십의 자질을 갖춘 전문인력의 니즈에 맞추어 풀 타임의 10개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경영학전공 이학석사 (Master of Science in Management Degree)와 MBA, PhD의 3가지 과정이 있다.

전략적 경영(Strategic Management)이라는 선택코스 중에서 창업 관련과목만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① Entrepreneurship : Formation of New Ventures
- ②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Capital
- ③ Seminar in Selected Entrepreneurial Issues
- ④ High-Technology Entrepreneurship
- ⑤ Strategy in Entrepreneurial Ventures
- ⑥ Creating and Sustaining Growth

(5)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UCLA) (www.anderson.ucla.edu / 5위)

UCLA의 경영대학원에서는 창업·기업가 양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4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 ① Managing Entrepreneurial Operations : 본 과목에서는 기업가가 창업활동에서 겪게 되는 문제점 등을 분석한다. 즉, 창업이전 단계의 의사결정이 창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창업초기에 당면하는 기회와 위기, 성공에 수반되는 스트레스, 생존하기 위한 역경관리 프로세스 등의 문제를 다룬다. 선수가목인 경영학의 각론 및 전략론에서 학습한 방법론, 원칙, 개념 등을 통합적으로 활용한다.
- ②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Initiation : 신규사업기회의 조사와 창업의 주요 측면을 다룬다.
- ③ Small Business Management : 중소기업 경영의 제반 문제와 해결방안을 연구한다.
- ④ Corporate Entrepreneurship : 창업의 특징 및 대기업의 효과적인 창업전략을 검토한다.

UCLA의 창업연구센터(Harold Price Center for Entrepreneurial Studies)는 MBA과정 학생들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벤처사업에 대해 매년 최고 50만달러의 종자자금(seed capital)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창업관련 능력의 많은 부분이 경험을 통해서만이 양성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창업협회(Entrepreneurial Association)와 공동으로 25개 이상의 과외활동을 후원하고 있다. 창업협회는 350명 정도의 학생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조직으로서, 경영대학원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활동적이다. 연사초청 강연은 물론 Mentor Program(MP), Small Business Career Night(SBCN), Venture Fellows Program(VFP), Student Investment Fund (SIF)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MP는 성공을 거둔 기업가들이 학생들을 지도해 주는 프로그램이며, SBCN은 25개 창업회사의 경영자와 학생들간의 만남의 장을 제공하여 취업기회에 관해 대화를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VFP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3개월의 여름인턴십 형태로 후원 벤터캐피탈회사, 포트폴리

오피스에 인턴으로 배치시켜 벤처자금의 관리 및 투자를 실습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SIF는 경영대학원 2학년 재학생중 6명을 선발하여 주식, 채권시장에서 실제로 자금을 투자할 기회를 제공한다. 교수진의 지도, 감독하에 포트폴리오 관리, 투자분석, 자산분배, 거래전략 등을 연구하며, 30여개의 투자관리회사를 방문하는데, 1987년 25만달러이던 투자기금은 현재 100만달러로 늘어났다.

(6)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 (www.marshall.usc.edu / 6위)

USC는 학부와 대학원 과정에서 창업관련 전공과목들을 개설하고 있다. 학부과정에는 창업전공생을 위한 과목과 비전공생을 위한 과목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다. 창업전공 프로그램은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기회의 분석, 사업컨셉트의 개발, 타당성분석에 의한 사업컨셉트의 검증, 포괄적 사업계획안의 작성 등을 통하여 실제로 창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자원의 조달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전공프로그램의 특징은 기업활동중에 있는 전임교수가 다양한 창업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전수할 뿐 아니라, 동문, 프로그램의 자문위원, 초빙연사들을 동원하여 강의, 워크숍, 세미나, 이벤트, 친목회 등 다양한 형태로 수업을 진행한다라는 점이다.

4학년때 창업전공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음 4과목(16단위)을 이수해야 한다.

- ① Introduction to New Ventures : 본 과목에서는 창업의 특성, 기회의 인식, 창업자원의 조달 등에 필요한 기초개념과 기법을 다룬다.
- ② Feasibility Analysis : 신사업의 시장성등 사업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 ③ Starting and Growing the New Venture : 창업 및 기업성장단계에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검토한다.
- ④ The Business Plan : 신규사업계획과 관련된 제반 요소를 연구한다.

이와는 별도로 창업전공을 하지 않는 경영학부생 또는 타학부생들을 위해 다음 과목들(각 4단위, 단 ④~⑥은 1단위)이 학기별로 개설된다.

- ① Fundamentals of Entrepreneurship : 자기사업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창업활동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개설되는 과목으로서, 학생들은 사업타당성 분석을 선택하거나 또는 교수의 승인을 받아 창업에 관한 프로젝트의 수행을 선택할 수 있다.
- ② Small Business Management : 중소기업의 전략적, 조직적, 인적 문제를 다룬다.
- ③ Technical Entrepreneurship : 장차 창업에 뜻을 둔 공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적소유권, 제품개발, 자원획득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 ④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 지적소유권의 창출과 보호, 유지 및 소유권의 상업적 가치실현을 위한 대체수단을 연구한다.

- ⑤ Franchising : 프랜차이즈 산업의 역사와 성장, 마케팅기법, 전략적 제휴의 구축, 프랜차이즈 당사자간의 계약상의 의무 등을 다룬다.
- ⑥ Financial Resource Acquisition and Intrapreneurship : 엔젤, 벤처캐피탈 등을 활용한 다양한 자금조달방법, 사내창업환경의 조성 등을 연구한다.

Marshall경영대학원에서도 다음과 같은 창업관련 전공과목들을 개설하고 있다.

- ① Introduction to New Ventures : 기업가의 역할 및 정신, 사업아이디어와 타당성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유통/판매/경영관리, 현금흐름분석, 자본조달 등에 이르기까지 창업활동의 전 과정을 조망하게 된다.
- ② Feasibility Analysis (신규개업입문의 이수자 또는 수강자만 수강가능) : 사업기회의 창출, 평가기법에 초점이 맞추어지며, 학생들은 학기프로젝트로서 타당성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New Venture Management : 창업주 또는 경영자로서 기업의 장기적인 성공의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하는 문제가 다루어진다. 매주 기업가초청강연 등을 통해 기업윤리, 인사관리, 전략적 계획 등의 문제를 탐구하게 된다.
- ④ The Business Plan (타당성분석의 이수자 또는 수강자만 수강가능) : 학생들이 창업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전문가를 동원하여 학생들이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비판과 조언을 제공한다.
- ⑤ Emerging Company Management : 신흥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수익의 추구를 위해 요구되는 전략적 초점, 조직문화, 경영스타일의 변화를 연구하고, 그 근간을 이루는 기업가적 관점과 능력의 지속적 개발에 중점을 둔다.

이 밖에도 학부의 경우와 같이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Franchising, Intrapreneurship 등의 과목도 개설하고 있다.

(7) University of Texas-Austin (www.utexas.edu / 7위)

Univ. of Texas 경영대학원의 MBA 프로그램에는 9개의 전공분야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창업분야이다. 이 분야를 전공하기 위하여는 다음 과목중 5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 ① Introduction to Entrepreneurship
- ② Opportunity Identification for Entrepreneurs
- ③ MOOT CORP I
- ④ Managing Growth
- ⑤ Entrepreneurship and New Ventures
- ⑥ Entrepreneurship Practicum

- ⑦ Frontline Management
- ⑧ Managing and Marketing in Global Arena
- ⑨ Managerial Accounting
- ⑩ MOOT CORP II
- ⑪ Service Management
- ⑫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 ⑬ Marketing Strategy Practicum
- ⑭ Marketing High-Tech Products
- ⑮ Financial Management of Small Business

창업분야를 전공하는 MBA과정 학생들은 취업시장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무, 인적자원관리, 정보관리, 마케팅관리, 생산관리 중 한 분야를 복수전공할 필요가 있다. 위의 개설과목 가운데 「⑦ 영업일선관리」 이하의 과목들이 기능형단적 코스로서 학생들의 수장이 권장되고 있다.

이 밖에도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벤트, 경연대회, 인턴십 등이 준비되어 있다.

- ① Entrepreneur Society Events : 가을학기에 사교회 회원 및 신입 MBA 과정생들이 기업가활동 집중코스를 담당하는 교수진, 지역의 창업기업가, 업계의 전문가 및 채용담당자들과 편안하고 사교적인 분위기속에서 창업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다.
- ② International Moot Corp : 경영대학원생들이 상세한 성장사업계획을 개발하여 세계의 우수 경영대학원 학생들과 창업과 관련된 경연을 벌이는 행사이다.
- ③ UT-Kauffman Entrepreneur Internship Program : 현장경험의 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선별된 경영대학원생들만이 벤처캐피탈회사, 신규창업회사 등에서 여름기간 동안 유급 풀타임 인턴(주당 40시간)으로 근무하는 프로그램이다.

(8)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MIT) (web.mit.edu / 8위)

경영대학원 MBA 프로그램의 학생들은 맞춤형식의 과목을 이수하는 'self-managed program' 또는 경력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특정의 'management track'을 선택하여 과정을 마칠 수 있다. 전자의 과정에는 창업이 포함되어 있고, 후자의 과정에는 '신제품과 벤처개발'이 포함되어 있다. 신제품 및 벤처개발 과정(New Product and Venture Development Track)은 기업가와 혁신기업의 신제품관리자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첨단산업, 신설기업, 창업경영 등에 관심있는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선택코스이다. 본 선택코스를 전공한 졸업생들은, 먼저 신제품, 신사업 개발사이클의 전 단계, 즉 기획평가, 시장평가, 전략개발과 실행 등에 대한 실용지식을 갖추게 된다. 다음으로 특정 시장에 맞는 신제품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창출하고, 고객의 요구를 설계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아이디어를 발명으로 전환시키며, 시장전략과 사업계획을 개발함으로써 발명을 혁신으로 전환시키는 프로세스를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신제품, 신사업 개발프로젝트를 진척시키는데 필요한 리더십을 개발, 연마하게 되며, 이를 통해 견실하고 설득력있는 사업계획의 창출능력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본 과정의 이수과목들은 다음과 같다.

〈필수과목 : 최소한 2과목 이상 이수〉

- ① New Product Development
- ② Product Design & Development
- ③ New Enterprises
- ④ Entrepreneurship Lab

〈프로세미나 : 1과목 이상 이수〉

- ① Proseminar in New Product & Venture Development
- ② Proseminar in Financing New Ventures

창업·리더십관련 선택과목군에 속하는 개설과목중 창업과 관련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 ① Competitive Decisionmaking and Negotiation
- ② Teams in Organizations
- ③ Planning and Managing Change
- ④ Special Seminar in Management : Entrepreneurship without Borders
- ⑤ New Enterprises
- ⑥ Entrepreneurship Lab
- ⑦ Preliminary Venture Analysis and Personal Entrepreneurial Strategy
- ⑧ Nuts and Bolts of Writing a Business Plan
- ⑨ Starting and Running a High Tech Company
- ⑩ The Thesis : Develop a Business Plan

(9) Baylor University (www.baylor.edu / 공동 11위)²⁾

Baylor Univ. 경영학부의 전공분야에는 회계, 상업방송, 상업저널리즘, 정보시스템, 경제학, 재무, 인적자원관리, 보험, 경영관리, 마케팅, 행정, 부동산, 도시/지방연구, 국제경영과 더불어 창업이 포함되어 있다. 창업전공은 고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런 기업에 취업하려는 학생들에게 독특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며, 전공생들은 다른 경영학 과목을 제2전공으로 택할 것을 장려받고 있다. 창업전공의 필수과목들은 다음과 같다.

- ① Venture Initiation

2) 9위와 10위의 대학대신 11위의 베일러 대학을 소개한 것은, 9위와 10위 대학의 창업교육 소개내용이 부실하다는 점과, 상대평가에서 순위는 다소 낮지만, 베일러 대학은 창업교육에 특화된 대학으로 지명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 ② Skills and Behavior of the Entrepreneur
- ③ Entrepreneurial Finance
- ④ Entrepreneurial Field Studies

또한 다음 과목가운데 한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 ① Managing the Family Business
- ② Innovation and Change Management
- ③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 ④ Internship in Business

4. 일본과 미국대학의 창업교육의 비교

앞서 일본과 미국의 주요 대학의 창업교과과정을 소개하였다. 아래 <표 3>는 양국 대학의 창업교육을 그 주체 및 대상, 교육방법과 내용에 입각하여 대비시켜 본 것이다.

<표 3> 일본과 미국 대학의 창업교육 비교

	일 본 대 학	미 국 대 학
교육주체	경영학부, 상학부, 일반대학원, 경영대학원, 연구센터	경영학부, 경영대학원, 타학부(농경제학과 등), 연구센터, 창업서클
교육대상	경영대학원 학생(창업자, 창업예정자, 기업관리자), 일반대학원 학생(전문직과정), 박사과정생, 석사과정생의 사회인, 창업/벤처 연구회 회원	학부생(경영학부내의 창업전공 및 비전공생), 티경영대학원 학생, 박사과정생
교육내용	창업가의 역사, 창업매니지먼트, 창업관련부문(파이낸스, 캐피탈, 엔젤, 멘터), 창업플랜, 창업육성 및 산업정책, 실리콘밸리 벤처마킹, 미/일 벤처산업 비교, 사내벤처, 창업적성진단, 주식공개와 도산방지, 기업평가, 인터넷벤처	창업매니지먼트, 창업컨설팅, 사업계획, 창업관련부문, 사내벤처, 기술창업, 사업기회발견, 신제품개발, 혁신관리, 사업타당성분석, 성장기업경영, 프랜차이즈, 가족사업, 중소기업의 경영·경제
교육방법	복수강사진의 순차적 공동강의, 창업경영자초빙워크숍, 사례연구, 컴퓨터시뮬레이션, 프로젝트연구(필드워크/인턴연수), 외국인교수초청강의, 공개강좌	강의/세미나/워크숍/이벤트등의 혼합방식, 현장프로젝트, 창업경영자특강, 창업관련기관탐방, 컴퓨터시뮬레이션, 사례조사, 독립연구, 경영학선수과목과의 통합, 투자활동실습, 창업경진대회, 사교모임, 국제창업경연대회

교육주체면에서 경영학부와 경영대학원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점, 학부이외의 교내연구센터가 별도의 창업활동에 가담하고 있는 점 등은 일본과 미국의 대학에서 공통점으로 발견된다. 그러나 타학부에서도 자신의 입지 강화를 목적으로 개설, 운영하고 있는 점, 학생들이 창업서클을 운영하여 학과수업을 벗어나 대외접촉, 친목도모 등의 행사를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점은 아직 일본대학에서는 볼 수 없는 미국대학의 독특한 점으로 꼽을 수 있다. 가령, 미국 동북부 뉴잉글랜드 지역 대학의 농경제학과에서는 전공지원생 및 과목수강생의 계속적인 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과목명칭과 내용을 개편한 결과, 수강생의 증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Lee, p.1186-87). 물론 이러한 성과로 인해 경영학부와 의 마찰이 일어나서 양자간의 원만한 의견조정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창업이 경영학 전공학생에게만 국한된 관심사항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예비창업자인 학생들에게 창업의 기회인식, 개업단행, 자가기업의 경영 등에 대한 교육을 학교전체 차원에서 관련 학부·학과의 공동협력을 통해 큰 틀을 짜는 필요성이 새삼 제기된다.

창업의 주체가 학생이라는 당연한 사실에 비추어 학교측에서의 창업교육의 제공에 대한 수동적, 수혜적 입장에서 탈피하여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창업준비에 도움될 수 있는 활동을 모색한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귀중한 경험이라고 여겨진다. 관심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중지를 모으고, 친목을 다지며 기존의 창업경영자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값진 정보를 얻어내고, 모의 창업 내지 실험적 투자활동을 한다는 것이 미국대학에서 엿볼 수 있는 독특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양국의 대학이 주대상으로 삼고 있는 교육층은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한 학생과 일반 사회인이다. 그러나 같은 대학원생이라고 하더라도 미국대학의 경우에는 MBA 과정 재학생이 전부인데 반해서, 일본대학의 경우에는 MBA 과정보다 일반대학원 과정의 학생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대학이 대학원생 못지 않게 학부생들에게 집중적인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일본대학의 경우는 1-2개 과목을 개설하는데 그칠 뿐, 경영학부 등 관련학부에서 창업전공의 형태로 체계화된 교과과정을 실시하고 있는 사례가 없다는 것이 큰 취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부 일본대학에서는 공개강좌 형태의 창업교육에 일반사회인과 더불어 학생까지 대상으로 함으로써 학부교육의 빈약함을 보완하려 하고 있다. 연구회나 연구센터 등이 회원을 가입시켜 창업교육을 함에 있어서도, 미국대학에서는 학부/대학원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속에서 상승적 효과를 거두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반면, 일본대학은 학부/대학원 교육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점이 대조적이라고 하겠다.

어떤 내용을 교육시키고 있는가에 관해서는 양국 대학의 공통점이 크다. 창업준비, 창업플랜, 창업기업경영(마케팅, 재무/회계, 기술개발, 경영관리, 법무관리, 인사관리 등), 창업연관부문(벤처캐피탈, 파이낸스 등), 사내벤처, 성장기업경영, 창업컨설팅 등은 양국 대학에서 공히 개설되고 있는 과목이다. 굳이 교육내용면에서 양국 대학의 독특한 과목을 거론한다면,

미국대학에는 사업기회발견, 기술창업, 프랜차이징 등의 과목이 눈에 띄는 반면, 일본대학에는 창업가의 역사, 창업육성정책, 창업적성진단 등을 들 수 있다.

미국과 일본 대학 모두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업경영자를 초빙한 특강이나 워크숍, 인턴연수 또는 필드 프로젝트,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강의방식에도 사례연구를 도입하고, 별도의 사업계획을 작성한 뒤 교수진, 창업경영자들로부터 평가받아 실행에 옮기는 실천형의 교육방식 또한 다른 전공분야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것으로 주목된다. 단지 미국대학은 실제 창업을 감행하도록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지원 하는 반면, 일본대학은 정규과정의 학생들보다는 연구센터나 연구회를 설립하여 가입한 회원들(창업에 뜻을 둔 일반인, 회사원 등)에게 신규개업의 준비작업 및 평가과정을 거치게 하여 그들의 창업성공 가능성을 높히려는데 주력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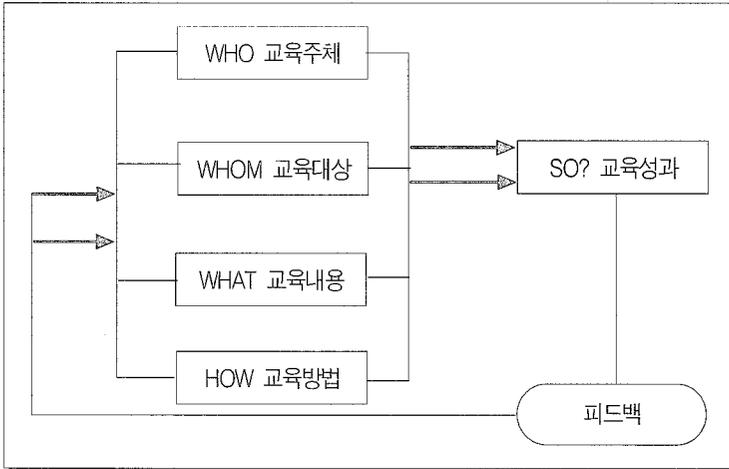
강의형태의 교육방법인 경우, 일본대학은 대학원과정에서 다수의 교수진이 합동으로 특정과목에 대해 주제별로 순차적인 강의분담을 하고 있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아울러 미국 기업의 창업에 대한 벤처마킹을 위하여 실리콘밸리의 벤처기업경영자 또는 미국대학의 창업 강좌 담당교수 등을 초청하여 강의를 개설하기도 한다. 미국대학은 학부생들에게까지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지원을 철저히 하고 있는 점이 독특하다. 비공식적인 사교모임을 정기적으로 열어서 학생, 교수, 창업경영자, 창업지원자, 선배 등과 자연스런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줌으로써, 창업결심에서 실행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일처리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데서 오는 불안과 초조함을 줄여주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메꾸어 줄 수 있는 보완자산을 상호 제공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5. 우리나라 대학의 창업 교과과정에 주는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일본 및 미국의 주요 대학들의 창업관련 교과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해서는 다음의 '창업교과과정의 체계'에 기초하여 언급하기로 한다.

일본과 미국대학의 경우, 창업관련 교과목이 대학과 대학원 과정에 모두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경영대학원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전체적인 창업의 열기 및 실현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되도록 다양하고 폭넓은 교육체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볼 때, 교육주체 및 대상은, 첫째, 직장인들의 독립창업 및 사내창업(소사장제도의 활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야간 경영대학원의 MBA 과정에 다양한 창업 교과과정을 개설하고, 둘째, 주로 공과대학 전공생들의 하이테크 부문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일반대학원의 공학관련학과와 경영학과간의 학제적 합동전공(interdisciplinary joint major) 커리큘럼을 신설하며, 셋째, 경험은 거의 없지만 실패의 두려움이나 여파가 적고, 젊음과 패기에 찬 학부생들에게 현재의 취업대란의 돌파책을 겸한 도전적인 창업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전공에 관계없이 전 학부생들에게 창업의 마인드를 고양시키는 창업관련 교과목 群을 각

<표 4> 大學의 創業敎科課程의 體系圖



학부/전공의 특색과 학생들의 관심에 맞게 다양하게 개설하되 반드시 경영학부내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으며, 넷째, 창업을 실행에 옮기려는 예비기업가에 속하는 학생들이 사업아이디어의 평가와 사업타당성 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창업자원조달, 정부의 창업지원제도의 활용 방법 등에 대해서 상담하고 지도받을 수 있도록 창업지원센터를 대학내에 설립할 필요가 있다.

교육내용의 차원에서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면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이 점에서는 창업기업가를 육성한다는 취지와 창업관련전문가를 배출한다는 취지로 구분지어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창업기업가의 육성면에서는, 창업이전 단계, 창업개시 단계, 창업이후 단계로 구분지어 볼 수 있다. 창업이전 단계의 내용은 기업가정신의 함양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창업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의욕의 고취가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독립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를 행동화(enactment)시켜주는 일이 대학교육의 본연의 임무라고 본다. 창업개시 단계에 관련된 내용으로는 시장기회의 발견 - 사업아이디어의 구상 - 사업계획의 작성 - 필요자원의 확보 등의 실행절차가 주된 교과목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고, 창업이후의 기업경영단계에서는 기존의 경영학 기능과목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창업관련 전문가양성 차원에서는 벤처캐피탈리스트 등 투자전문가, 창업컨설턴트 등의 배출에 도움이 되는 교과목의 개설이 필요하다. 신사업, 신제품이 갖는 시장성, 기술성, 수익성의 분석 및 평가능력을 강화시켜주는 기법들이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방식은 프로세스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는가에 따라서 창업기업가 및 관련전문가의 배출이라고 하는 성과가 결정될 것이다. 기존의 경영학과와 교과목들이 기능별로 세분화된 것인데 반해, 창업·기업가활동의 내용은 단편적인 기능의 전문화로 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전체적, 포괄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 즉 창업기업가는 사업·제품의

구상(conceptualization)에서부터 사업·제품의 구현(actualization)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터득해야 한다. 이는 기존기업내의 소사장제도와 같은 사내창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창업·기업가활동은 경영학의 어느 전공분야보다도 행동지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론과 실무가 모두 중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강의실에서의 이론적 교육뿐만 아니라, 창업기업가 초청강연, 현장방문, 사업계획에 대한 실무가들의 조언과 비판 등을 통해 학생들이 간접체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현장실습, 실제 사업안의 작성, 외부인사 섭외문제, 창업관련 네트워크의 구축 등 일련의 실무작업은 학과 교수진에게만 맡기기에 너무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전담할 창업지원센터의 설치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교육시스템을 통해서 창업경영자(및 관련지원자)의 배출이라는 교육성과가 나오게 된다. 이런 성과는 단기적 척도(교육대상자 대비 실제 창업가담자의 비율)와 중장기적 척도(실제 창업가담자의 성장력과 기간)를 바탕으로 평가될 것이며, 그 결과가 피드백되어 교육주체인 대학이 교육대상자에게 무엇을 어떤 식으로 교육시켜야 보다 효과를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수정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松田修一·大江建, 『起業家の輩出』, 日本經濟新聞社, 1996.
- 三井逸友, “創業支援の課題と現状”, 『商工金融』, 1997.8.
- 日本興業銀行, 『興銀調査』, No.4, 1997, p.279.
- Behaman, J. N. and R. I. Levin. “Are Business Schools Doing Their Job?”, *Harvard Business Review*, Jan-Feb 1984, pp. 140-147.
- Clark, B. W. et al., “Do Courses in Entrepreneurship Aid in New Venture Crea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April 1984, pp. 26-31
- Gartner, W. B. and K. H. Vesper. “Experiments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 Successes and Failur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9, 1994, pp. 179-187
- Lee, Linda K., “Developing Undergraduate Small Business Programs in Agricultural Economics Department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76, Dec 1994, pp. 1186-1192
- Plaschka, G.R. and H. P. Welsch. “Emerging Structures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 Curricular Designs and Strategies”, *ET&P(Entrepreneurship:Theory and Practice)*, 14, 3, Spring 1990, pp. 55-71
- Robinson, P. and M Haynes,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America’s Major Universities”, *ET&P*, Spring 1991, pp. 41-52
- Vesper, K. H. and W.B. Gartner. “Measuring Progress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2, 1997, pp.403-421